

사내벤처에서 “성공예감” 흘로서기

■ 이선호 기자(w3master@energycenter.co.kr)



포스코의 에스코벤처팀이 (주)에스코프로(대표 이상수)로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성공적으로 분사했다. 대표이사를 맡은 이상수 사장과 4명의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출범한 에스코프로는 지난 2월 17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아카데미타워에 등지를 틀고 관계자들을 초빙한 가운데 개업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에스코프로는 에너지절감을 위한 진단 및 설비투자(ESCO)사업, 에너지설비 종합분석시스템 개발, 제조 및 판매, 에너지절감 상품 판매 등을 사업내용으로 해 본격적인 에너지절감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이 날 개업식에서 이상수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2년 전 사내벤처로 출발하여 그동안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5명의 직원이 참여, 오늘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확실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서 성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또 포스코의 조성식 전무는 “사내벤처제도의 도입 이후 성장을 꾸준히 지켜보아온 사람으로써 에스코프로의 성공적인 분사를 맞아 감회가 새롭다”고 말하고 “벤처의 기본인 도전정신과 창의성을 가지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업계에서 신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에스코프로는 그동안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포스코센터 건물의 에너지절감 사업 이외에 광양제철소, 창원특수강, 포스코의 중국현지법인인 대련포금강판, 한국수자원공사의 전북 정읍철보추수장 등지에서 ESCO사업을 수행했다. 포스코는 에스코벤처팀의 지난 2년간의 경영실적을 평가, 올 1월 성공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분사를 결정하게 되었다. ”

포스코가 사내벤처제도를 도입한 것은 지난 2001년 11월부터. 사내벤처 2호인 에스코벤처팀은 우리나라 에너지 사용량의 10%를 소비한다는 POSCO에서 10여년 이상 현장의 에너지관리 및 진단기술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출발했다.

그동안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포스코센터 건물의 에너지절감사업 이외에 광양제철소, 창원특수강, 포스코의 중국 현지법인인 대련포금강판, 한국수자원공사의 전북 정읍철보추수장 등지에서 ESCO사업을 수행했다.

특히 동관 30층, 서관 20층, 지하 6층의 대형건물로 국내 최초의 인텔리전트 빌딩인 포스코센터에서는 공기기 운전 프로그램 개선 등을 통해 연간 2억9천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현재 부산염색공단, 포항의 포스코 본사사옥, 포항제철소 1제강공장 등지에서 에너지절약사업을 활발히 진행중인 상태다.

포스코는 이와 같은 에스코벤처팀의 지난 2년간의 경영실적을 평가, 올 1월 성공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분사를 결정하게 되었다. 포스코는 사업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위하여 7%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관련 계열사들도 10%(포스콘 5%, 포철산기 5%)의 지분율을 확보해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수 사장의 참여직원들은 나머지 83%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 날 개업식에는 포스코 및 관계사 임직원, 사내벤처 동료들, 박석우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운용처장, 허운 ESCO 팀장 등이 참석해 에스코프로의 새출발을 축하했다. ㉠



이상수 사장은 전북대를 졸업했으며 미국 IOWA주립대 대학원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건물에너지전공으로 포스코의 건물 및 공장설비 건설감독을 지냈으며 공장에너지 진단 경력만 17년에 이르고 있다.